

#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성경말씀: 눅7:36-50

복음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육체로 거하시면서 행한 일들 기록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사람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출생, 시험, 침례, 제자들을 부르심, 왕국의 특성 설명

7장: 메시아의 표적(백부장의 병든 중, 나인 성의 죽은 청년을 고침)

침례자 요한의 의심

두 종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두 가지 반응

백성과 세리들: 하나님을 의롭다고 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함(30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죄들의 용서

## 1. 창녀와 바리새인의 대조(36)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는 어쩌면 진지한 마음으로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 당시의 풍습: 초대 받지 못한 외부인들이 집 주위를 서성이며 초대 인사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공개된 상태였고 또 이 여인처럼 직접 집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여인들은 초대 대상이 아니었고 더욱이 창녀들은 이런 데 올 수 없었다.

## 2. 회개하는 여자(37-38)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였다.

사복음서 대조를 보면 침례자 요한이 사자들은 보낸 내용(눅7:19-35)이 마태복음 11장 1-19절에 나온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보면 안식을 위한 초대의 말씀이 있다.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그녀의 태도에 이런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신은 어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가?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갈급함이 있는가? 안식을 원하는가? ★★★

하나님의 일이 왜곡되는 것은 보고 가슴에 분한 마음이 생기는가? ★★★

## 3. 비판하는 바리새인(39-43)

시몬은 당황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대언자라고 하기에 초대했는데 죄인을 구분도 못하다니!”  
시몬의 문제: 눈이 멀었다.

그는 자기와 여자와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다.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자기도 죄인인 것을 보지 못했다. ★★★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읽으셨다.

여기서는 사람 속의 죄의 양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루고 있다.

누가 죄인인가? 얼마나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가?

여자나 바리새인이나 우리나라 다 죄인이다.

바리새인의 죄는 영적 교만의 죄로 덜 드러났을 뿐이다.

여자의 죄는 육신의 죄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

빛을 준 자와 빛진 자 이야기: 500 데나리온, 50 데나리온

그들에게 갚을 것이 전혀 없어서 둘 다 너그럽게(거저, 충분하게) 탕감해 주었다.

복음의 핵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복음이 아니다. ★★★

용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빛을 준 자를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

목사의 눈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다. ★★★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 4. 용서하시는 예수님(44-50)

여자와 바리새인의 차이: 용서받은 자와 용서를 모르는 자의 차이

발 씻을 물: 샌들, 위가 더럽다. 소파에 기대어서 먹는다.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입 맞추다: 사랑의 표시, 남자들도 한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하지 않았다. 발에 입을 맞추다.  
머리에 기름을 붓다: 냄새가 나게 한다. 발에 부었다.

바리새인 시몬은 외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그분을 초대했으나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마음으로 그분을 멸시하였다.

바리새인: 교육을 많이 받았다. 잘 산다. 아는 것이 많다.  
교리가 바르다.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믿음 즉 예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롬14:23).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사무엘기상,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 이 둘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2:12). 이 둘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멸시를 받았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를 입어야 한다(눅2:52).

구원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행2:47)

용서받은 자는 믿음의 행위가 겸손하게 나온다.

이 여자는 울고 바른 일을 해서 용서받지 않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50절).

이런 행위는 다 믿음의 행위이다.

예수님은 여자의 헌신을 거부하지 않았다.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

특징: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아무리 스스로 인정을 받으려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인정한다(삼상3:19).

예수님의 판결: 47절

많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우리는 어떤가? ★★★

그런데 이 여자의 사랑이 그녀를 구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자를 구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였다. 은혜는 치르는 사랑, 독생자의 죽음(요3:16)

예수님의 선언: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나님만 죄들을 용서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여인이 구하던 평안을 주셨다(50절).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평안이다.

데이비드 오위,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카페 등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혹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면 곤란하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안식과 평안을 동반한다. 당신은 평안한가? ★★★

#### 결론

복음의 모든 요소가 들어 있다.

1.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2.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3. 믿음을 가지고(신뢰하고) 그분께 나와야 한다.
4. 믿음의 행위가 뒤따른다.
5. 평안의 삶이 시작된다. 용서의 확신에서 나온다. 이것은 결코 번영과 쾌락을 보장하지 않는다. 영의 곤고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젊은이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 월기가 왕성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자들이다. 돌이켜야 산다.

당신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당신이 받은 은혜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다. ★★★